

전력그룹사 '중소 판로확대·상생' 다양한 시책 편다

한전, 지난해 혁신조달 구매실적 906억원...총 구매액 3.3% 비중 한전KPS, 계측기 교정 지원·품질 교육·일대일 기술 자문 지원 한전KDN, 모범거래 가이드라인 제정...불공정거래 예방 나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있는 전력그룹사들이 중소기업과 상생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편다. 3일 공공기관 경영공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전력과 한전KDN, 한전KPS 등 3개 전기기업의 혁신조달 구매실적은 921억4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총 구매액(2조9199억1600만원)의 3.2%를 차지한다. 혁신조달은 공공기관이 상용화 전 혁신제품을 먼저 구매해 상품성을 입증하고 판로를 만들어주기 위한 제도이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 동안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 국내 최대 전기기업 한전은 지난해 906억원에 달하는 혁신제품을 구매했다. 총 구매액(2조7275억원)의 3.3% 비중을 차지한다. 한전KDN은 총 구매액 508억원의 1.4%에 해당하는 7억100만원을 혁신제품으로 채웠으며, 한전KPS는 1416억원의 0.6% 가량인 8억4900만원을 혁신조달했다. 이들 전력그룹사는 지역산업을 키우고 중소기업과 공정거래를 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발·송전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는 지난해 이어 중소기업 품질보증 지원 프로그램인 'S-슈어(SURE)' 참여기업을 이달 2-13일까지 모집한다. 'S-SURE'는 중소기업의 계측기 및 공기구의 검·교정과 품질교육으로 기술 표준화를 지원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한전KPS 고유의 상생협력 프로젝트이자 ESG 기반의 사회적 가치창출 프로그램이다. 지난해에는 353개 중소기업이 이 프로그램 대상에 선정돼 1만867점을 대상으로 한 계측기 교정을 지원받았다. 한전KPS는 품질요원 126명을 육성했으며, 참여 기업 95% 이상이 부품 신뢰성을 확보하며 총 59억원에 달하는 매출 증대 효과를 보였다. 올해 한전KPS는 300여 개 중소기업에 계측기

교정 지원과 품질 교육, 일대일 기술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전KPS는 '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교정기관으로 선정돼, 숙련된 교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자체 보유하고 있는 실험실 장비를 활용해 제품 품질 향상과 기술 자문을 벌일 방침이다. 김흥연 한전KPS 사장은 "이 프로그램은 동반성장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실현해 한전KPS의 ESG 책임 경영을 고도화하는 사업"이라며 "한전KPS는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KDN은 최근 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공정계약 모범거래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법령 준수, 중소기업 권익 보호, 불공정거래 차단, 공정계약 기반구축 등 4개

분야 총 17개 항목에 대한 'KDN 맞춤형 이행지침'을 담고 있다. 한전KDN은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해 사업현장 실무자의 의견을 청취·반영했다. 이 과정에서 '입찰참가자 안전관리 강화', '기술 피해 신고절차 및 홍보 체계화', '저가계약 요소차단' 등 신규·개선 추진과제를 발굴해 이행지침을 확정했다. 조직 내 공정문화 인식 확산을 위해 수립된 '맞춤형 가이드라인' 홍보를 활성화하고 상시 자가진단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방침이다. 한전KDN 관계자는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의 운영을 통해 공정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주기적 모니터링 점검을 통한 이행관리와 맞춤형 추진과제 발굴을 통해 공정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남악오룡지구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 분양



중흥토건, 9일부터 특별공급 사이버 모델하우스 공개

중흥그룹 중흥토건은 '남악오룡지구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돌입했다고 3일 밝혔다. '남악오룡지구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 사이버 모델하우스는 분양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으며, 견본주택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자에 한해 입장 가능하다. 무안군 일로읍 오룡지구 41블록에 들어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8개 동, 전용 84㎡ 총 543세대 규모로, 전용 84㎡A 498세대와 전용 84㎡B 45세대로 구성된다. 분양 일정은 오는 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0일 1순위, 11일 2순위 청약접수가 이뤄진다. 당첨자 발표는 이달 18일이며, 정당계약은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이다. 단지는 남악JC, 서해안-남해고속도로 등 교통

여건이 우수하고, 각종 인프라를 갖춘 남악지구 생활권으로 각종 상업시설 및 공공청사(예정) 등 생활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단지 앞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교 등 전 연령대 학군이 도보거리 곳곳에 들어설 예정으로, 인근에는 교육특화 용지 '아카데미 빌리지'도 조성 중이다. 영산강 조망과 다양한 녹지공간을 품어 쾌적한 주거환경도 갖출 것으로 보인다. 또 남향 위주 배치 및 4Bay 설계(일부)를 토대로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 단일 타입으로 마련된다. 지상에 차가 없는 안심 설계를 적용, 실내골프연습장과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등 각종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선다. 특히 단지가 들어서는 남악신도시는 총면적 14.6km²로 약 15만명(4만5000세대)의 대규모 주거타운으로 조성되고, 2024년 남악-옥암-오룡지구의 1단계 개발이 완료될 계획이어서 수요 폭은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견본주택은 무안군 남악리 2557번지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4년 8월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MZ 세대와 소통 강화' 사학연금, 신입직원 특강

MZ 세대 주축 소통협의체 운영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주명현 이사장이 최근 나주 본사에서 올해 상반기 공개채용을 통해 뽑은 신입직원 42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특강 주제는 '조직 내 소통과 대인관계'였다. 주 이사장은 이날 강사로 나서 젊은층을 대표하는 'MZ 세대'로 구성된 신입사원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학연금은 이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가자들의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지키며 비대면 방송을 병행했다. 주 이사장은 "조직에서 원활한 소통은 조직의 발전으로 이어져 가치와 성과를 창출하는 중요한 유효유라 생각한다. 조직 내 수직·수평적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한 고객중심의 경영방향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특강 외에도 참가자들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PCSI) 평가 결과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고객 만족을 위한 전사적 차원의 CS 마인드 내재화 교육도 진행됐다. 사학연금은 앞으로 MZ 세대를 주축으로 하는 소통협의체를 운영하며 소통 중심의 조직문화를 활성화 할 방침이다. 20대부터 50대까지 세대 공감을 확산시키기 위해 MZ세대와 실장·팀장, 임원진으로 이어지는 직급 간 조직문화를 바꾸자는 내용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국가대표 옷 입어볼까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6층 골프 브랜드 '와(WAAC)' 매장에서 '국가대표 라인' 의류를 선보이고 있다. 이 브랜드는 도쿄올림픽 골프 국가대표 단체복 지원을 기념해 '국가대표 라인'을 내건 티셔츠, 바지, 모자, 양말, 캐디백 등을 판매한다. <롯데쇼핑 제공>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투자 가치 100% 확신! 강력추천!



감정가 5,920,417,660원

서구 쌍촌동 (한국병원 부근)

- 대 지 : 2,700 m²
- 건물 : 3,704 m²
- 지상4층 근린생활시설
- 지하2층 주차장 기계실

매도가격 협의

상담 010-3733-3933